한국인 우주인 후보 최종 6인에 선정된 이소연씨가 10일 광주시 서구 광천동 자신의 집 정원에서 환하게 웃음을 짓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러 우주인 테스트 마치고 귀국한 광주 출신 **이 소 연** 후보

"무중력 상태 10차례 3천m 급강하"

"오싹하는 스릴 대신 붕~뜨는 느낌 한국인 최초 우주인 꼭 되고 싶어"

한국인 우주인 후보 최종 6인에 선정된 광주 출신 이소연(여·28·KAIST 바이오시스템학과 박사과정)씨가 러시아 가가린(Gagarin) 우주센터에서의 테스트를 마치고 9~10일 광주 집에 잠깐 들렀다.

10일 집에서 만난 이씨는 무중력 비행기 탑승 훈련 등 그동안의 경험을 자세히 소개했다.

이씨 등 우주인 후보들은 지난 5일 '일류신'(IL-76 MDK)에 탑승했다. '일류신'은 길이 47m·높이 15m·너비 51m의 날아다니는 우주비행 실험실. '일류신'은 이씨 등을 태운 채 6천m 상공으로 올라갔다가 갑자기 엔진을 멈추고 그냥 아래로 떨어졌다.

"놀이공원에서 '자유 드롭'을 타는 것과는 느낌이 완전히 달랐어요. 등골이 오싹하는 스릴은 전혀 없었고, 다만 몸이 '붕~' 뜨기만 했죠."

'일류신'이 급강하를 시작할 때 이씨는 몸과 매고 있던 배낭이 순간적으로 무거워 진 것을 느꼈다고 한다. 당시 중력은 지구에 있을 때의 2배인 2G(Gravity). 하지만 우주선 내부는 이내 무중력 상태에 돌입했고, 몸이 공중으로 치솟았다. 손발을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었고 누군가 몸에 손가락만 대도 저만치 날아갔다.

무중력 상태는 20여 초간 계속됐다. '일류신'은 3천여m 상공까지 떨어지다가 다시 엔진을 켜고 고도를 높이기 시작했다. 원래 고도에 도달하면 다시 급강하… 1시간 30여 분 동안 열 번이나 무중력 상태가 반복됐다.

지난 6일 가가린 센터에서 있었던 수중임무 평가도 무중력 상태 적응 여부를 테스트하는 것으로, 스킨스쿠버 복장을 한 채 12m 수조 아래를 잠수해 걸어다니는 훈련을 받았다.

"기대와는 달리 가가린 우주센터 외형은 너무 볼품없었어요. '귀신 나오겠다'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곳이었죠. 화장실도 우리나라 공중화장실보다 못하고…. 하지만 내부로 들어가는 순간 인류의 위대함을 느꼈습니다."

이씨는 어렸을 적 TV에서 SF영화를 보면서 우주인의 꿈을 키웠다. 지난 4월 과학기술부 등의 '우주인 선발안내' 공고를 봤을 때,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꿈이 되살아났다. 학업도 제쳐놓고 선발에 응모한 이씨. 처음에는 300인 안에 드는 것이 목표였지만, 6인의 최종 후보 안에 든 것이다.

이씨는 "선발 과정을 거치면서 너무 소중한 경험을 했다"면서 "꼭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송원여중과 광주 과학고를 졸업한 그녀는 매일 아침 1시간 가량 조깅을 하고, 30~40분씩 수영을 즐긴다. 시력은 오른쪽 0.6 왼쪽 1.2로 썩 좋은 편은 아니다. 하지만 우주인이 되겠다는 강한 열정이 그녀를 여기까지 이끌었다.

과학기술부 등은 지금까지의 성적을 바탕으로 오는 25일 우주인 최종 후보 2인을 선발하며, 최종 후보자들은 내년 한 해 러시아에서 훈련을 받은 뒤 1명이 2008년 러시아 우주왕복선 '소유즈'(Soyuz) 호에 탑승한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지난 5일 러시아 비행기 '일류신'에서 무중력 훈련을 받으며, 태극기를 흔들고 있는 이소연(윗줄 오른쪽에서 네 번째)씨.

아침 기온 '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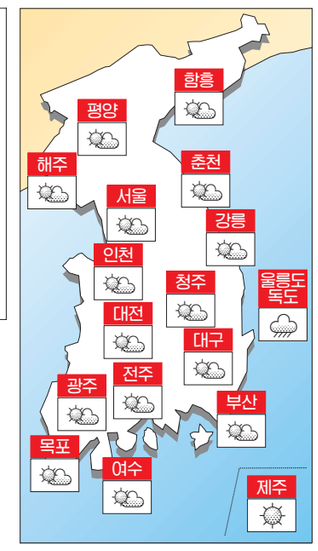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뒤 밤에 구름이 많겠다.

12월 11일 (음 10월 21일) ◇전국날씨

광 주	차차 흐려짐	-2~9℃
목 포	차차 흐려짐	0~9℃
여 수	차차 흐려짐	1~10℃
완 도	차차 흐려짐	0~10℃
구 례	차차 흐려짐	-4~9℃
해 남	차차 흐려짐	-3~10℃
장 흥	차차 흐려짐	-4~10℃
고 흥	차차 흐려짐	-2~10℃
순 천	차차 흐려짐	-4~9℃
영 광	차차 흐려짐	-2~9℃
진 도	차차 흐려짐	-1~10℃
전 주	차차 흐려짐	-3~10℃
남 원	차차 흐려짐	-4~10℃
정 읍	차차 흐려짐	-2~9℃

서해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1.0m
먼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1.5m
남해서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1.0m
먼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1.5m

목 포 밀물 05:51 18:37 썰물 11:15 --:--
여 수 밀물 00:43 13:21 썰물 06:45 19:45



▲해뜸 07:30 ▲해짐 17:21 ▲달뜸 23:28 ▲달짐 12:09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2(화)	13(수)	14(목)	15(금)	16(토)	17(일)
날 씨						
최저/최고	1/11	5/9	3/10	1/8	-2/3	-3/5

제시문 문구 그대로 인용땐 감점 건전한 관점보단 논리전개 중점

고려대 논술 채점 방식 공개

고려대가 올해 6월 실시한 논술 모의고사의 채점자 후기(後記)를 10일 전격 공개했다.

교수 50여 명으로 구성된 채점단은 ▲논제의 요구를 무시하는 답변 ▲제시문의 문구를 그대로 인용해 쓰는 문장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 등 글쓰기의 '기본기'가 부족한 글을 논술 채점의 '마이너스' 요인으로 꼽았다.

◇논제에 충실하라=논제 요구와 상관없이 장황하게 문제 제기를 하거나 쓸 데 없이 규범적인 결론을 내는 것은 피해야 한다. 논제의 요구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면 될 뿐 기승전결이나 서론-본론-결론의 틀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제시문을 베끼지 마라=제시문에서 중요한 대목이나 문장을 단순히 조각조각 떼어내 주어진 분량으로 줄여 연결하는 방식은 감점요인이 된다. 논제가 '요약하라' 혹은 '요지를 밝혀라'고 한다면 제시문의 핵심을 찾아내 이를 자신의 글로 소화한 다음 압축해서 표현하라는 뜻이다.

◇건전한 관점보다는 논리가 우선=채점자들이 평가하려는 것은 수험생들이 '얼마나 건전한 관점을 갖느냐?' 하는 것보다 '어떻게 치밀하고 일관성 있게 자신의 논리를 전개하는가'이다.

◇또박또박 써라=휘갈겨 쓴 글씨 때문에 내용이 채점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다면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 수리논술에 답할 때도 채점자들이 잘 읽을 수 있도록 수식을 정돈해 배열해야 한다.

◇기본에 충실하라=한글 맞춤법과 띄어쓰기, 원고지 사용법 등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은 감점 대상이다. 아무리 좋은 글을 썼더라도 맞춤법이 틀리면 글쓰기의 기본적인 능력마저 의심받는다.

◇수리논술도 논술=수리논술을 수학 문제라고 생각해 수식과 기호로만 답안지를 작성하면 안된다. 논제가 글로 제시한 사항을 이해해 이를 수식으로 바꿔 해결한 다음 다시 완결된 문장으로 답을 서술해야 한다. /연합뉴스

불법주차 견인업무 자치구 환원

광주 내년부터

광주시내 불법주차 견인업무가 내년부터 동구·서구·남구·북구 등 4개 자치구로 환원된다. 지난 93년 당시 광주시교통관리공사가 광산구를 제외한 4개 구청과 협약을 체결해 대행해온 지 15년 만이다.

광주시와 광주시도시공사는 10일 자치구 고유 업무인 불법주차 견인업무를 내년부터 각 자치구로 환원키로 하고, 이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이관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남아 있는 견인 업무 관련 인력 24명 가운데 운전직 8명을 4개 자치구에 각 2명씩 이관하고, 견인차량 15대도 동구(6대)·서구(3대)·남구(2대)·북구(4대)에 돌려준다는 계획이다.

도시공사는 하지만 수납업무 등을 맡아왔던 나머지 인력 16명은 구조조정키로 하고 최근 이사회를 열어 퇴직금 산정 방법을 논의하는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도시공사는 지난 93년 5월부터 불법주차 견인업무를 대행해 왔으나, 지난해 말까지 35억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하는 등 적자가 심해 지난해부터 이 업무를 자치구로 환원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93년 당시 광주시교통관리공사가 4개 구청으로부터 이관받은 인력은 76명· 차량은 17대였다.

동구 등 4개 자치구는 지난 95년 9월까지 모두 11억8천700만원의 적자를 보전해줬으나 95년 10월 구의회 의장단의 건의에 따라 적자보전을 중단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학점 C+ 미만 교사 못된다

2008년 입학생부터 적용

2008학년도 입학생부터 사범대학·교육대학원을 졸업하거나 교직과정을 이수해도 학점이 나쁘면 중등교원 자격증을 받지 못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예비교사의 자질과 능력을 높이기 위해 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무시험 검정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교원양성체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2008학년도에 대학 및 교육대학원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졸업성적이 평균 75점(C+) 미만인 경우 교사자격을 딸 수 없다.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전공 학점은 42학점에서 50학점으로, 교직 학점은 20학점에서 22학점으로 늘어나고 교직 실습 학점도 2학점에서 4학점으로 늘어난다.

특히 대학입시에서 논술비중이 커짐에 따라 현재 선택과목으로 돼있는 논리 및 논술과목이 필수과목(2학점)으로 바뀌고 학급경영이나 조직 윤리 등 교사로서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과목과 특수교육관련 과목도 필수과목으로 신설된다.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 졸업자는 물론 일반대학 교직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도 이 기준이 적용된다. 그러나 현재 재학생이나 2007학년도 입학생은 적용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당초 교육혁신위원회 방침대로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에도 이 기준을 적용하려 했으나 교대의 경우 이수학점이 이 기준보다 높아 별도 협의를 통해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전교조 광주지부장 박재성씨 전남지부장엔 구신서씨 선출

신임 제13대 전국교원노동조합 광주지부장에 박재성(50·광주제일고 교사)씨가, 수석부지부장에 현병순(여·40·운암중 교사)씨가 선출됐다.

전남지부장에는 구신서(49·목포 전남제일고)씨, 수석부지부장에 김형자(여·50·곡성 옥과중)씨가 각각 당선됐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